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551

JCCT 2024-7-64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 돌봄,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Job Stress, Self-Care, and Resilience on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COVID-19

장선희\*, 김민영\*\*\*, 차애경\*\*, 이재정\*\*, 장귀석\*\*, 진영숙\*\*, 이성주\*\*\*\*

**Jang Sunhee\***, **Kim Minyeong\*\*\***, **Cha Aegyeong\*\***, **Lee Jaejung\*\***,  
**Jang Gwuseok\*\***, **Jin yoingsook\*\***, **Lee Sungju\*\*\*\***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G도에 소재한 3개의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 $\beta=.49, p<.001$ ), 직무스트레스( $\beta=-.36, p<.001$ )로 나타났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3.7%이었다( $F=32.20, p<.001$ ). 본 연구결과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for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From April 10, 2023 to April 28, 2023, data were collected from 145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in three designated COVID-19 hospitals in G-do using a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c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of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resilience ( $\beta=.49, p<.001$ ) and job stress ( $\beta=-.36, p<.001$ ) were foun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53.7% ( $F=32.20, p<.001$ ).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of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concrete measures to reduce job stress and improve resilience should be sought.

**Key words** : job stress, self-care, resilience, and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졸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과정생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과정생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24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Received: April 24, 2024 / Revised: May 25, 2024

Accepted: June 14, 2024

\*\*\*\*Corresponding Author: ju8279@hanmail.net

Dep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Korea

## 1. 서론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예방과 감염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및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부터 거점 전담병원은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 병상으로 통합하여 운영중이다[1].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인은 최전방에 있으며, 거의 모든 영역의 의료서비스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 간호사는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근무 인력 중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감염병 노출에 취약하다[3].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특히 레벨D 개인 보호구 착용·탈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코로나-19 노출로 인한 감염에 불안감이 크다[3]. 또한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COVID-19 지침과 정책을 이해하고 지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이 되면서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다[4].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심리반응을 감소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겠다는 간호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5].

직무 스트레스란 맡은 일로 인해 심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일컫는 말로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6]. 코로나-19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의 관련성 연구[7], 임상간호사,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임상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3],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와 간호하지 않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이직의도 비교 연구[2]에서 코로나-19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의 정도가 심하고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소진,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같은 행위로 심신의 건강과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개인적 실천행동

이 필요하다[8]. 자기 돌봄과 관련하여 Lee & Miller (2013)[9]는 자기의 총체적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자기돌봄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으로 정신건강문제와 자기위로 능력, 업무에서 경험하는 소진이나 대리외상, 정서적 고갈, 역전이 감정과 행동과 같은 부정적 심리경험, 그리고 역전이 관리행동과 같은 변인과 관련이 있고[10], 최연희(2017)[11]의 연구에서 자기 돌봄의 능력이 향상되면 소진과 공감 피로의 영역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긍정적인 힘과 개인의 강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업무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한다[12]. 회복탄력성은 간호수행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고[13],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전문직 삶의 질은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공감만족, 부정적인 측면은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로 나누어져 있다[16].

국내 전문직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전담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감염관리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관련 연구[17], 정신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관련 요인[18], 일부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연구[19]등 특수상황에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보상인 공감 만족과 부정적 측면인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다수였다. 이러한 특수상황에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감 만족이 낮을수록,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18, 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에서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나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돌봄과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감염병 전담 간호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기 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도에 소재한 3개 코로나 지정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수는  $G * 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24]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의 수 13개(일반적 특성 10개,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로 설정하였을 때 131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대상자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46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부를 제외한 총 145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연구 도구는 각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 도구사용을 승인받은 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의 5문항이고, 직무 관련 특성은 직급, 총 임상경력, 근무부서, 코로나 환자 돌봄경력, 근무형태의 5문항이다.

#### 2)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국내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백희정, 김인아, 박주현, 윤미라, 남은정(2019)[20]이 개발한 한국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Korean Nurses'Occupational StressScale:K-NOSS)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직무요구-자원모형(Job

Demand-Resource Model:JD-Rmodel)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무요구는 9개 영역, 직무자원은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14개 영역,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2이었다, 김화순 외(2022)[26]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9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으로 나타났다.

#### 3) 자기돌봄

자기돌봄 척도(Self-Care Assessment for Psychologists; SCAP)는 전문 심리학자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자기 돌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orociak, Rupert, Bryant, 그리고 Zahniser[21]가 개발한 척도를 이은진, 백상은, 조영미[14]가 타당화 분석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돌봄 척도는 전문직 참여 활동 6 문항, 일-휴식 균형 3문항, 사회적지지 7문항 등 3개 하위요인,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1=절대 그렇지 않다, 7=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돌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Dorociak 등의 연구[21]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0.77였고, 이은진 외[14]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으로 나타났다.

#### 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미국의 Conner와 Davidson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와 다른 정신질환자의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23]을 백현숙[22]이 변안한 한국형 회복탄력성(Korean version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인성 9문항, 지속성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 2문항, 영성 2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4점,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onner와 Davidson[23]이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미정[24]의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 5) 전문직 삶의 질(Pro-QOL)

전문직 삶의 질 측정도구는 (Stamm, 2009)[16]이 개발한 전문직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공감만족/공감피로 버전 5 (Professional Quality of LifeScale, ProQOL;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version 5)를 주혜선, 조윤희, 안현의[25]가 타당화를 검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0개 문항, 3개 하위영역(공감만족 10문항, 소진 10문항, 이차외상성 스트레스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Stamm, 2009)[16]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공감만족이 .88, 소진 .75,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81이었다. 주혜선, 조윤희, 안현의 (2016)[25]의 연구에서 공감만족, 소진, 이차외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도구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 .74, .8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공감만족, 소진, 이차외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도구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 .75, .84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진행하였다. G도에 소재한 3개의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해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설문 실시 후 응답자의 비밀 유지를 위해 밀봉된 봉투에 넣은 후 완료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제 변수 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영향요인 분석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승인번호: \*\*\*\*-2023002)을 받은 후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과정 동안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응답 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지켜질 것을 설명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145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이 141명(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6~30세가 64명(44.1%)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03명(71.0%)으로 기혼 42명(29.0%)보다 많았다. 학력은 학사가 109명(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90명(62.1%),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125명(86.2%)으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경력은 5~10년 미만인 60명(41.4%), 근무부서는 외과계병동이 87명(60.0%)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환자 돌봄경력은 2~3년 미만인 50명(34.5%)이었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108명(74.5%)으로 상근직 37명(25.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직 삶의 질은 결혼상태( $t = -2.60, p = .010$ ), 근무형태( $t = -3.27, p = .00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45)

Variables	Categories	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4 (2.8)	3.34 ±0.54	0.12 (.905)
	Female	141 (97.2)	3.32 ±0.41	
Age	≤25	26 (17.9)	3.32 ±0.49	0.90 (.442)
	26-30	64 (44.1)	3.29 ±0.32	

Marriage	31-35	21 (14.5)	3.24 ±0.50	-2.60 (.010)
	≥36	34 (23.4)	3.41 ±0.44	
	Single	103 (71.0)	3.26 ±0.40	
	Married	42 (29.0)	3.45 ±0.40	
Final Education	College	24 (16.6)	3.27 ±0.35	2.02 (.136)
	University	109 (75.2)	3.30 ±0.42	
	≥Master	12 (8.3)	3.54 ±0.37	
Religion	No	90 (62.1)	3.33 ±0.43	0.45 (.650)
	Yes	55 (37.9)	3.30 ±0.39	
position	General nurse	125 (86.2)	3.30 ±0.40	-1.30 (.195)
	≥Charge	20 (13.8)	3.43 ±0.48	
clinical experience (year)	≤5	49 (33.8)	3.32 ±0.43	2.93 (.057)
	≤5-10	60 (41.4)	3.24 ±0.37	
	≥10	36 (24.8)	3.45 ±0.43	
Working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ward	46 (31.7)	3.32 ±0.50	0.67 (0.512)
	surgical ward	87 (60.0)	3.33 ±0.36	
	intensive care + emergency room	12 (8.3)	3.19 ±0.40	
Care experience for COVID-19 patients (year)	≤1	23 (15.9)	3.42 ±0.42	1.94 (.125)
	1~2	36 (24.8)	3.39 ±0.45	
	2~3	50 (34.5)	3.30 ±0.37	
	≥3	36 (24.8)	3.20 ± 0.40	
Type of work	shift work	108 (74.5)	3.26 ±0.43	-3.27 (.002)
	full-time work	37 (25.5)	3.48 ±0.31	

##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56점(4점 만점) 이었고, 자기돌봄은 4.11점(7점 만점), 회복탄력성은 3.26점(5점 만점)이었다. 전문직 삶의 질은 평균 3.32점(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도구 5점만점에 공감만족은 평균 3.24 ±

.65점, 소진은 평균 2.92 ± .49점, 이차외상성트라우마는 평균 2.92 ± .49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정도

Table 2. The subject's job stress, self-care, resilience, and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M±SD	min	Max
Job stress	2.56 ±0.28	1.93	3.56
self-care	4.11 ±0.64	2.50	6.13
Resilience	3.26 ±0.50	2.12	4.88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3.32 ±0.41	2.00	4.37
compassion satisfaction	3.24 ± .65	17	50
Burn out	2.92 ± .49	10	44
secondary traumatic trauma	2.37 ± .54	60	37

\* 소진, 이차외상성트라우마를 역으로 환산 한 뒤 구함.

##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는 자기돌봄( $r=-.34, p<.001$ ), 회복탄력성( $r=-.23, p<.007$ ), 전문직 삶의 질( $r=-.51, p<.001$ )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돌봄은 회복탄력성( $r=.57, p<.001$ ), 전문직 삶의 질( $r=.48,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은 전문직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62, p<.001$ ).

표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 전문직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job stress, self-care, resilienc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1	2	3	4	5	6	7
	r(p)	r(p)	r(p)	r(p)	r(p)	r(p)	r(p)
1	1.00						
2	-0.34 (<.001)	1.00					
3	-0.23 (0.007)	0.57 (<.001)	1.00				

4	-0.33 (<.001)	0.54 (<.001)	0.69 (<.001)	1.00			
5	0.46 (<.001)	-0.43 (<.001)	-0.56 (<.001)	-0.57 (<.001)	1.00		
6	0.34 (<.001)	-0.05 (0.566)	-0.08 (0.345)	0.03 (0.737)	0.43 (<.001)	1.00	
7	-0.51 (<.001)	0.48 (<.001)	0.62 (<.001)	0.74 (<.001)	-0.88 (<.001)	-0.59 (<.001)	1.00
	1. Job stress						
	2. self-care						
	3. Resilience						
	4. compassion satisfaction						
	5. Burn out						
	6. secondary traumatic trauma						
	7.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4.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 근무형태, 그리고 전문직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결혼상태, 근무형태는 더미 변수 처리 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stepwise) 방식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st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2.135로 자기

상관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 .633 ~.848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beta=.49, p<.001$ )이었고, 그 다음은 직무스트레스( $\beta=-.36, p<.001$ )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53.7%이었다( $F=32.20, p<.001$ ) (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6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코로나-19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윤세영, 안성복[7]의 연구는 평균 2.65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경기도 공공병원의 코로나-1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e Jun-Heel[2] 등의 연구는 1.37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Bae[2]의 연구가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연구 시기가 코로나 발병이 시작된 시점이고, 지역상 적은 수의 코로나-19 환자의 확진자 발생으로 간호로 인한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

표 4.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Job Stress, Self-Care, and Resilience on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n=145)

	모형1					모형2				
	B	SE	$\beta$	t	p	B	SE	$\beta$	t	p
(상수)	2.94	.12		24.55	<.001	3.10	.36		8.68	<.001
Marriage (Single standards)										
기혼	.14	.08	.15	1.73	.085	.05	.06	.06	.93	.352
Type of work (shift work standards)										
상근근무	.16	.08	.17	2.02	.045	.01	.06	.01	.17	.867
Job stress						-.53	.09	-.36	-5.74	<.001
self-care						.05	.05	.07	.99	.323
Resilience						.40	.06	.49	6.81	<.001
Adj-R <sup>2</sup>			.059					.520		
R <sup>2</sup>			.072					.537		
R <sup>2</sup> 변화량			-					.465		
F(p)									32.20(<.001)	
F변화량(p)									46.47(<.001)	

추되며(MOH, 2021),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업무 및 역할증가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자기돌봄 정도는 7점만점에 평균 4.11점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와 비슷한 논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국판 상담자 자기돌봄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는 자기돌봄은 평균 4.87점[14]으로 본 연구와 비슷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미술심리 상담사의 자기돌봄은 5점 만점에 평균 3.38점[26]로 높았다. 자기돌봄은 개인적 또는 전문가적 자기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9]. 개인적 자기돌봄은 자기의 총체적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전문가적 자기돌봄은 총체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맥락 내에서 전문가적 역할에서의 자기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covid 19 지침과 정책을 이해하고 지침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며,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윤현경, 전재희)[4]. 개인적 자기돌봄을 해야 하는 임상간호사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타인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에 이들에게 자기돌봄 역시 자신의 총체적 안녕 및 전문성 개발에 의도적이고 자신의 총체적 안녕 및 전문성 개발에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활동[9]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은 5점만점에 평균 3.26점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 [12], 의 연구는 3.57점, Pratibha Bhandari 등[28]의 연구는 3.76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보고된 송진숙, 허수연[28]의 연구에서는 2.35점이었고, 이주연, 이미향[29] 연구는 2.58점으로 낮았다.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 국민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자신을 단련해[30] 회복탄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의 평균은 3.32이었다. 하위요인 중 공감만족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ovid 19 전담간호사 대상의 연

구에서 3.22점[17]으로 유사하였다.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하여 제시한 선행연구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인 홍진영, 선수경[31]의 연구에서 공감만족 3.32점과 유사했으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주[19]의 연구는 공감만족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감만족은 간호사로서 자신이 다른 대상자를 도울 때 느끼는 만족감으로[32], 전문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 중 긍정적 측면의 변수이다. 이러한 공감만족은 전문직 삶의 질의 부정적 요소인 간호사 업무를 통해 생겨나는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서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16].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19] 코로나가 처음 발병된 도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호사 배치수준과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공감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하위요인 중 소진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OVID-19 전담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2.89점[17],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소진 연구는 2.97점[3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주이, 이태화[34]의 연구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피로누적, 업무 증가 및 휴식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반복적, 지속적, 만성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소진을 겪는 것[34]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COVID-19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근무환경, 근무형태 개선,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통한 휴식시간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에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3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OVID-19 전담간호사 대상의 연구 2.89점[17],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2.61점[31]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겪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높은 특수 파트 근무 간호 인력이 겪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예의 주시해야하며, 주기적 사정을 통해 필요시 상담 및 교육적 증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은 결혼상태,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분석 결과 미혼보다 기혼이 높고, 교대근무보다 상근직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혼자가 정서적 갈등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가족 지지가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다[35]. 근무형태를 보면 상근직보다 교대근무 간호사가 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36]. 이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상태 측정 및 충분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며,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삶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돌봄,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문직 삶의 질과 직무스트레스와의 부적 상관관계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주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 노출 위험성 및 감염관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직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의 전문직 삶의 질과 자기돌봄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자가 전무하여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문직 삶의 질의 하위요인으로 볼때 자기돌봄은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되어 전문직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는 자기돌봄이 건강한 생활양식[37], 공감피로의 예방 증진과 같은 긍정적 성과와 연관되었다. 또한 상담자의 임상실무자들은 자기돌봄으로 정신건강과 트라우마[38]와 같은 내담자 주제를 다룰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다.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돌봄과 전문직 삶의 질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 없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전문직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신지연[4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고, 소진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적인 역량이 될 수 있다[41]. 하지만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과 전문직 삶의 질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beta=.49, p<.001$ ), 직무스트레스( $\beta=-.36, p<.001$ )이었고, 미혼보다 기혼이, 교대근무보다 상근직이 전문직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종민과 김종경의 연구이었다.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에서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공감만족이 향상될 수 있고,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감소와 예방을 할 수 있다. Stamm[16]은 공감만족은 소진의 위험을 낮춘다고 하였으며, 강정숙[13]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김진성, 이향심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전문직 삶의 질도 높다는 내용으로 뒷받침 된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간호업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업무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하는 내재적 역량이라 하였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하여 최적의 직무 환경과 근무 형태 조성도 필요하지만, 회복탄력성을 통해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회복탄력성의 증진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고, 긍정적이며, 책임감 있게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개발이 요구된다.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직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과 비교해보면 코로나 19 전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신민영, 정우정[17]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간호사 대상의 박선자와 김지원[43]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노은영, 채영준, 김현정[41]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의 부족은 간호사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박유진, 차경숙, 이기령의 선행연구 [2]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속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하였다. 유선주[19]의 연구에서 소진은 업무부담에 대한 부정적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는 부정적 경험이라 말하면서 전문직 삶의 질이 저하된다 하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발생시켜 전문직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중재 프로그램 등을 설계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울 때 개인과 조직 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으로써 병원간호사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시행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 자기돌봄,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같이 고생했던 직업들의 전문직 삶의 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전문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

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효과를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otion of Step-by-Step Adjustment of Designated Hospital Beds for COVID-19 [Internet].
- [2] J.H. Bae, A.Y. So, S.J. Chang, and S.A.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COVID-19 Ward and General Ward Nurses in Public Hospital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30, No. 2, pp. 46-56, 2021. DOI:https://doi.org/10.5807/kjohn.2021.30.2.46
- [3] Park Yu Jin, cha kyeong sook, Lee Kee-Lyong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clinical nurses throughout the COVID-19 pandemic-A focus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infection stress, and occupational stres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21, vol.5, no.3, pp. 11-23 (13 pages) DOI:https://doi.org/10.34089/jknr.2021.5.3.11
- [4] H.J. Yun, and J.H. Jeon,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in Designated COVID-19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4, No. 4, pp. 413-423, 2022. Vol., No., pp. -, 2022. DOI: https://doi.org/10.7475/kjan.2022.34.4.413
- [5] H.J. Park, and M.H.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Nursing for Patients with Corona Virus Disease 19," *Journal of Korean Society Nursing Ethics*, Vol. 1, No. 2, pp. 19-30, 2021. DOI:https://doi.org/10.51462/jksne.2021.1.2.19
- [6]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2-Educational Media. DOI:https://shri.allwinedu.net/support/pds/%EC%A7%81%EB%AC%B4%EC%8A%A4%ED%8A%B8%EB%A0%88%EC%8A%A4%20%EA%B4%80%EB%A6%AC\_0401.pdf
- [7] S.Y. Yun, and S.V. Ahn, "Correlation Between COVID - 19 and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search*, Vol. 2, No. 2, pp. 202-218, 2022. DOI: https://doi.org/10.52937/hira.22.2.2.e5
- [8] J.Y. Nam, "Impediments to Self-Care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Focusing on Self-Disagreement and Guilt.[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21. p. 1-45.
- [9] Lee, J. J & Miller, S. E. (2013). A self-care framework

- for social workers: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94(2), 96-103.
- [10]K.M. Hong, and K.W. Kim, "A Research Study on the Concept of the Counselor's Self-Care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Vol. 15, No. 2, pp. 153-177, 2012.
- [11]Y.H. Choi, "The Role of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are and Burnout/Compassion Fatigue of Counselors," [master's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2018. p. 1-169.
- [12]Eun Hee Park(2022). "The Influence Factors on Nursing Practice by Clinical Nurses(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20 no.10, 2022년, pp.121 - 129. DOI:https://doi.org/10.22678/JIC.2022.20.10.121
- [13]Kang, Jenong-Sook, Lim, Ji-Young.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1, 2015년, pp.263 - 273. DOI:https://www.dbpia.co.kr
- [14]E.J. Lee, S.E. Baek, and Y.M. Cho, "Validation of the Professional Self-Care Scale for Korean Counselor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Vol. 20, No. 5, pp. 245-271, 2019. DOI:https://doi.org/10.15703/kjc.20.5.201910.245
- [15]S.H. Moon, M.H. Kim, D.Y. Kim, Y.J. Ryu, S.J. Lee, J.N. Jang, et, al.,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at an Infectious Disease Hospital of COVID-19,"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15, No. 2, pp. 39-49, 2022. DOI:https://doi.org/10.34250/jkccn.2022.15.2.39
- [16]B.H. Stamm, (2009). "The Concise ProQOL Manual," Retrieved from ProQOL.org Database Available from <https://proqol.org/proqol-manual>, 2010 University; 2018. p. 1-169.
- [17]Minyoung Shin, Woojung Joung. "Effects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Infection Control Fatigue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Nurses in Designated COVID-19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Adm*. 2023 Dec;29(5):603-613. Korean. DOI:https://doi.org/10.1111/jkana.2023.29.5.603
- [18]H.S. Park, "The Factors Related to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for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30, No. 3, pp. 247-256, 2021. DOI:https://doi.org/10.12934/jkpmhn.2021.30.3.247
- [19]Sun-Ju Yo. "Work -Life Balanc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ediating Effects of Occupational Str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2 pp.1-14 June 2021. DOI:https://doi.org/10.12811/kshsm.2021.15.2.00
- [20]H.J. Baek, and H.Y. Lee, "Korean Nurses Occupational Stress Scale(K-NOSS) Development," *KOSHA Guide*.2020;7(2):30-35.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2454&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 [21]K.E. Dorociak, P.A. Rupert, F.B. Bryant, and E. Zahniser,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ar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64, No. 3, pp. 325-334, 2017. DOI: <https://doi.org/10.1037/cou0000206>
- [22]H.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Psychiatry. 2010. p. 1-23. DOI :<http://www.riss.kr/link?id=T11976844&outLink=K>
- [23]K.M. Connor, and J.R.T.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https://doi.org/10.1002/da.10113>
- [24]Jo, Mi Jeong · Sung, Mi-Hae, "Impact of Role Conflict,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Nursing Task Performance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7 No. 1, 59-66, February 2018 DOI:https://doi.org/10.5807/kjohn.2018.27.1.59
- [25]H.S. Joo, Y.W. Cho, and H.N. Ah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5(K-ProQOL 5)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Vol. 16, No. 3, pp. 269-298, 2016.
- [26]Kim, Bona, Lim,nayou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Level of Art Therapists and Burnou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are and Self-Reflec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18. No.2, 1-21 DOI: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9605>
- [27]Pratibha Bhandari 등(2023). "Effects of Anxiety, 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dustrial Convergence Research* Vol. 21, No. 2, pp. 43-52, 2023. DOI:https://doi.org/10.

- 22678/JIC.2023.21.2.043
- [28]Song, Jinsuk, SOO YEON HUH.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Burnout: Focusing on Nurses' Experi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4), 2018, 544-570. DOI: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544
- [29]Joo-Yeon Lee1, Mi-Hyang Lee. "A Study on Calling, Resilience, Leader-Member Exchange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2, pp. 313-321, 2020. DOI:https://doi.org/10.14400/JDC.2020.18.2.313
- [30]Lee, Myeong-Seon, Choe, Myoung-Ae. "A nurse fighting on the front lines of COVID-19"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8 No. 1, 33-39, April, 2021. DOI:https://doi.org/10.16952/pns.2021.18.1.33
- [31]Hong, Jin Young, Sohn, Sue Kyung. "Effect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12, No.2, 13-25, June, 2019. DOI: https://doi.org/10.34250/jkccn.2019.12.2.13
- [32]Younghye Go, Mihyun Lee. "Effect of Resilie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12, pp. 551-562, 202. DOI:https://doi.org/10.15207/JKCS.2021.12.12.551
- [33]Jun, Sun Hwa, Lee, Mi Hyang, Choi, Mi Jung. "COVID-19 Infection Control-Related Fatigue, Job Stress, and Burnout in Nurs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DOI:https://doi.org/10.22705/jkashcn.2021.28.1.16
- [34]Kim JI, Lee TH. "The influenc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2 No.2, 109-117, August 2016. DOI:https://doi.org/10.22650/JKCNR.2016.22.2.109
- [35]Mi Young Han, Min Sook Lee, Ju Young Bae, ong Suk Kim.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5 Mar;21(2):193-202. Korean. DOI:https://doi.org/10.11111/jkana.2015.21.2.193v
- [36]Bo mi Kim, Hee yeon Kim. "The Effect of Nurses' Job Involvement and Emotional Labor on Their Intention to Leave Focusing on Shift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2, December (2019), pp.535-544. DOI: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2.048
- [37]Jordan, K. (2010). Vicarious trauma: Proposed factors that impact clinicians.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21(4), 225-237.
- [38]Bober, T., & Regehr, C. (2006). "Strategies for reducing secondary or vicarious trauma: Do they work?"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6(1),1-9.
- [39]Sun-Ju You. "Effects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f Operating Room Nurses on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ProQO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5 No.2 pp.1-14 June 2021.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1.15.2.001
- [40]신지연, "Effects of Job Stress and Resilience of Operating Room Nurses on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ProQOL)" *중앙대학교 건강간호대학원 석사논문*
- [41]Eun-Young Noh, Young Jun Chai, Hyun Jeong Kim, Eunjin Kim,4 and Yeon-Hwan Park. "Nurses' Experience with Caring for COVID-19 Patients in a Negative Pressure Room Amid the Pandemic Situation" *J Korean Acad Nurs.* 2021 Oct;51(5):585-596 DOI: https://doi.org/10.4040/jkan.21148
- [42]Seon-Ja Park, Jee-Won Kim,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Occupational Stres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348-360, 2019. DOI: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48

※ 본 연구는 2023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  
비로 진행 되었음(창신-2023-052).